

진도군, '2025 진도국제무형문화축전' 화려한 개막

10월 31일 오후 6시, 진도향토문화회관서 개막식 개최
전통과 예술, 교류와 감동이 함께하는 글로벌 문화축제

진도군은 오는 10월 30일(목)부터 11월 2일(일)까지 진도향토문화회관과 칠마공원 등에서 '2025 진도국제무형문화축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진도국제무형문화축전'은 진도군이 주최하고 진도문화도시센터가 주관하며, 국내외 무형문화 유산의 교류를 통해 지역과 세계가 어우러지는 참여형 축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축전의 개막식은 10월 31일(금) 오후 6시에 진도향토문화회관에서 개최되며, 소년소녀예술팀 '리틀엔젤스'의 특별무대와 '플라잉 퍼포먼스', '북의 대합주' 등 일상에 접하기 어려운 색다른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송가인', '마이진', '최진희', '울랄라세션' 등 인기 가수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축전 기간에는 ▲진도다시래기 ▲진도씻김굿 ▲진도북놀이 ▲강강술래 등 진도를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과 ▲삼도 아리랑 ▲안성 바우덕이 풍물패 ▲강릉단오제 관노가면극 등 전국 각지의 전통예술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하카' ▲러시아 사하공화국의 '툰드라' ▲코트디부아르의 '사아프리카춤' 릴리 등 해외 공연단의 문화예술 공연이 마련돼 있으며, 시시화 진도 작가 특별전, 먹거리 판매, 전통문화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진도 문화토크(포럼), 삼락장터, 진도실버가요제 등 풍성한 협력 행사가 준비돼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는 우리나라 무형문화의 중심지로, 이번 축전을 통해 진도의 예술혼이 세계로 퍼져나갈 바란다"라며, "군민이 주인공이 되는 축전으로 발전시켜 진도의 문화

가 세계 속에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10월 30일(목)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의 진도읍 칠마공원과 주요 거리에서 행진(퍼레이드)과 참여형 거리춤(플래시몹)을 결합한 '2025 진도 굿나잇 야행'이 진행될 예정이다.

진도/오재명 기자

영암도기박물관, 차도구와 차문화 이야기 특별전

'음다(飲茶)' 주제 도자 전시... 매주 토요일엔 '찾자리'도 열려

영암도기박물관이 11/1일부터 내년 3/1일까지 대한민국 한옥비엔날레 연계 행사의 하나로 '음다(飲茶) : 차문화와 차도구 이야기' 특별 전시를 진행한다.

'차를 마신다'는 의미를 가진 옛 표현 음다는, 조선시대부터 음다법(飲茶法)의 이름으로 알려져 왔다.

그 이후 오늘날까지 음다는 차를 달고 마시는 과정이 음용을 넘어 마음을 맑히고, 사유하고, 삶의 여백을 찾는 행위이자 하나의 문화로 뜻이 확장됐다.

이번 영암도기박물관의 전시는 차를 매개로 도자의 미감과 정신을 탐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흙의 본질을 탐구한 무유도기, 예와 미의 격조를 지닌 청자, 자연의 질감이 담긴 분청사기, 절제된 백자와 자연의 결이 숨쉬는 유리공예 등 차도구의 다양한 흐름 속에서 재료와 시대를 초월한 차의 시간이 펼쳐진다.

관람객들은 김대용, 신병석, 은성민, 유하나, 최진훈, 최수진 작가의 작품과 영암도기박물관 소장 다완을 감상하며 차 한잔에 담긴 아름다움과 사유의 깊이를 느껴볼 수 있다.

아울러 '차향 체험존'에서는 차향을 맡으며 전시를 볼 수 있고, '함께 쓰는 전시 이야기'에서는 일상의 여유와 맞닿아 있는 차도구와 차문화에 대한 감상을 남길 수도 있다.



11/1~16일 기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 김대용 작가와 영암차인회가 번갈아 영암도기박물관에 '찾자리'도 운영한다.

김 작가는 무유도기의 질감과 흙의 온기를 담은 차도구를 내놓고, 영암차인회는 지역 전통차 문화를 소개하며 관람객에게 따뜻한 차 한잔의 여유를 선사할 예정이다.

박연희 영암도기박물관 팀장은 "전시에서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도기에서 유리공예까지, 다양한 시대와 재료의 차도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점에서 전통과 현대의 감성을 발견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담양군문화재단(이사장 정철원, 이하 재단)은 11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담양호텔드림드 대연회장에서 2025 담양 문화예술포럼 '담양의 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사라져가는 담양의 사람·공간·기억에 스며 있는 문화적 숨결을 다시 비추고, 치유와 회복이라는 동시대 문화의 흐름 속에서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의 방향과 미래 비전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포럼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담양의 문화자원과 공동체의 기억을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인구감소·지역소멸 등 구조적 위기에 대한 문화적 대응을 지역 안팎의 사례 공유와 공론을 통해 모색하고자 한다.

강연·공연·대화가 어우러진 참여형 열린 포럼으로 운영하여 폭넓게 공감하고

2025 담양 문화예술포럼 '담양의 숨' 개최

현재의 질문과 내일의 행동으로 잇는 참여형 공론장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천적 논의를 이끄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재단은 이를 통해 지역의 일상 속에 이어져 온 '살아 있는 문화의 숨결'을 현재와 미래의 전략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다시 봄이 온다면 말야」 창작음악극 공연으로 시작해 ▲충혼마을 예술활동을 통한 세대 이음 사례(황유진(썬이랑고랑 대표) ▲지역소멸 대응 문화창업 전략과 기획 사례(이선철 감자꽃스튜디오 대표) ▲지형과 경관을 기반으로 문화와 미래를 보는 공간 변천(강석훈 건축사사무소 선임 대표) ▲담양의 기억이 쌓인 식탁, 오래된 음식점을 통한 공동체

문화 탐색(서해숙(썬남도다락 대표) 등의 강연이 이어진다.

끝으로 강연자와 참여자가 함께하는 질의응답을 통해 담양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재단 관계자는 "담양의 숨'은 일상의 가장 작은 단위의 문화에서 출발해 공동체의 기억과 힘을 이어가는 문화적 숨결'이라며, "담양이 보유한 문화예술자원을 통해 새로운 지속가능한 실행 전략으로 연결하는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럼은 예술가, 문화예술계 종사자, 일반시민 등 문화예술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착순 약 7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사전 신청은 온라인 신청서(구글폼)를 통해 받으며, 행사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문화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이종욱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11월 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순천시립신대도서관 잔디광장에서 '제15회 정채봉 동화잔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채봉 동화잔치'는 '동화가 하나되는 순천'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행사는 故 정채봉 동화작가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학축제로 문학상 시상식,

순천시, 제15회 정채봉 동화잔치 개최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꾸며진다.

특히, 전국 단위로 진행된 올해 문학상 공모에는 200편이 넘는 작품이 접수돼, 창작동화 부문에서의 높은 관심과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문학상 시상식은 오후 3시에 진행된다. 故 정채봉 작가의 동심과 사랑의 메시지를 이어가는 우수한 창작동화 작품에 대한 시상이 이뤄지며, 문예도시 순천의 위상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이 될 전망이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정채봉 퀴즈, 플리마켓, 어린이 장터, 마술·버블 공연, 버스킹 공연, 체험 프로그램(각 정인형 키링, 양말뭉치 네잎클로버, 북마크 만들기) 등 문화와 놀이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잔디광장을 웃음과 즐거움으로 채울 예정이다.

순천/정성인 기자

완도군, 보길 예약도 문화예술 관광 명소로 만든다!

50억 투입 전시 공간, 포토존, 둘레길, 허브 정원 등 조성

완도군은 섬마다 지닌 자원을 활용해 전역을 '치유의 섬'으로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보길 예약도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보길 예약도에 해상 인도교인 예약도가 놓이면서 관광객의 발길이 늘고 있다.

이에 군은 총 50억 원을 투입하여 예약도를 전해의 자연환경, 돌담길 등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관광지로 조성하고 군 대표 관광지인 보길도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현재 전시 공간 디자인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말 용역이 끝나면 예약도 내 자연환경을 이용한 전시물 및 포토존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스토리텔링 기반의 콘텐츠를 구성하여 누구나 쉽게 작품을 쉽게 이해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약도의 자연과 문화 자원을 보존하며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둘레길 정비와 허브 정원 경관 연출, 소재 실내 리모델링 등은 2027년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한다.

장기단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 및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관광객이 예약도의 자연, 문화, 예술 등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감성적 공간으로 만들어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보다나온 농어촌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보길

금이 있습니다

연예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보길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